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시므온·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인사구역회가 열립니다. 인사구역회원은 지방회원입니다.

2011년도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각 부서장들은 한 해의 활동 및 재정을 정리해 오늘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1층 로비에 준비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교회 주방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들은 1층 로비 서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을 신청 받습니다. 꼭 보실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네모난 것들이 많습니다. TV,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책... 일주일에 하루는 둥근 것 보기에 힘써 보십시오. 얼굴, 하늘, 달, 별...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심상숙 이근식 최영혜 이선희 김신욱
12/25 식당 봉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조순덕
오늘설거지봉사 : 김종락 박영신 박인혁 유상진
다음 주 설거지 : 조선환 강인숙 김정행 박시내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실 마음의 구유를 깨끗하게 정돈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과감하게 옛 삶을 뒤로하고 별을 보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더 맑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먼지처럼 들썩이던 헛소문들은 가라앉게 하시고, 진실만이 모든 이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애3:21-23 인도자
- ♣ 교 독 문 116. 구주 강림(2)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함께

- ♣ 성경봉독 I. 마2:1-12 최희영 선생
 II. 사40:1-8 이형숙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불을 끄지 못한 사람들 김재흥 목사
 II. 한 소리가 외치다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손성현 안경아 김인걸 문영혜 강순배 김정애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김정애 박영희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정재정 최종원 임영정 정경례 김수진 홍성식
 이유리 한상균 강세기 이소애 권채영 박권동 최선미 김보라 조병억
 조정연 방문성 박혜경 민병배 문현미 방민방 준오진훈 노순옥

월정헌금:

권미정 김승현 김수진 김순자 김지윤 박범희 박미영 백성래 유상진
 유은정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이봉옥 이은자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박윤숙 황원순 황자순 이지훈 홍춘숙
 홍복선 이경남 허준호 최은미 무명
 이수정 이영우

감사헌금:

박근혜 이정은 전서연 강순배 홍성식 이유리 민정인 홍순구 안홍숙
 유상진 유은정 형인순 이광용 조연우 오주은 2여성교회 무명7

녹색꿈헌금:

장다운 송희원 채원 우석 장재영 김재영 조연우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오송경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노순옥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이소순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안홍숙
	정영선	이현숙	송양진	김희우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조항미	박성희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마음으로 읽는 글

돌멩이 하나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 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쫓기로나 깜박하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김남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격려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함께 : 아멘. 내 욕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 예언자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욕심의 소리는 줄이고 말씀의 소리를 크게 들겠습니다.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온 말씀을 이제는 나도 일어나 외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조지연 선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권 순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조관행 허정윤 임영선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한 가정에 열 평

도시의 단독이나 아파트들은 주거 공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농촌도 신축 주택들은 마찬가지다. 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새로 짓는 농촌주택의 설계나 다름 바 없다. 군청에는 농가 주택 신축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있는데 이 설계도에는 난방을 절약하는 전통적인 주거 원리나 환경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도 기왕에 새 집을 지으면서 좀 더 넓고 시원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커지면 문짝과 창문, 기구들도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진다. 그만큼 에너지가 소요되고 난방비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누구나 넓은 집, 넉넉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은 너무 넓다. 물론 일고여덟 가족이 한 이불 아래 부챗살처럼 발을 꽂고 살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당 2인 이내의 가족 세대 비율이 2010년 말 기준으로 48.2퍼센트라는 통계에 비추어봐도 집들이 너무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작은 생활공간에서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전통 가옥 구조에는 난방시설이 없다. 거실과 안방, 화장실과 욕조 등이 모두 오밀조밀하다. 일본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데 공간들은 기껏해야 20~40평 수준이다. 일본의 공동체 마을 ‘잇토엔’의 겐토 선생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는 앉으면 반 장, 누우면 한 장”이라고 했다. 일본 가옥의 실내 바닥재인 짚 매트(다다미) 기준으로 말한 것인데, 한 장은 반평이다.

이제 집이란 상품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주소지는 있지만 가족사가 담긴 ‘생가生家’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집은 사람의 생애에서 육신이 처음으로 강생한 마구간이고 영혼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성전이다. 그 소중한 환경을 상품 딱지로 여기게 되다니.....

하느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 힘 있는 자와 약자 모두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팔거나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도록 아예 흔하게 창조하셨다. 공기와 물과 햇빛이 그렇다. 흔한 것은 하느님의 공유公有이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유共有다.

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이 있는 광덕산은 수원이 풍부하고 물맛이 아주 좋은 곳이다. 방문자 중 한 사람이 장 수산나 원장에게 생수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권유했다. 장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신 것을 그러면 되나요? 햇빛, 공기, 물 이런 거는 사고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느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상품으로 거래한다.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일상이 불과 15년 정도다. 왼손에 생수, 오른손에 산소캔을 들고 다닐 때가 오면 재앙의 날이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의식주를 보면 하느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했음을 믿게 된다. 명품 핸드백이라고 두 개 들고 다닐 수 없고,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두 벌 꺼 입을 수 없다. 귀한 진수성찬도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는 없다. 고광대실 100평 아파트에서도 자는 데는 침대 하나가 필요할 뿐이다. 장자는 “산새는 온 숲을 자기 세상처럼 노니지만, 제 둥지는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다” 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다. 번뇌와 고통의 화구가 되기 십상이다. 삶이 빛날 수 없고 천박해질 위험성이 크다. 다만 그것이 필요함에도 얻지 못한 이의 뭇으로 삼을 때만이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

생각해볼 것이 있다. 배고픈 시대의 노동자는 임금으로 착취당하고 배부른 시대의 노동자는 문화로 착취당한다. 수입의 대부분을 문화·교육비로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다. 아니, 자발적으로 바친다. 땀 흘려 일하고 목숨 걸고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 확보한들 자신도 자녀도 임금 노예의 삶을 피할 길이 없다. 의식주가 해결되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무엇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가족이 열 평 집에 살아도 충분하다. 도시인의 눈에는 좁아 보이겠지만 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와 작은 삶에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동 공간은 넓게, 개인 공간은 좁게!’라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다.